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경애
출장기간	당 초	10.23~10.28	출장지	당 초	프랑스 파리	
	변 경			변 경		
출장목적	유네스코 성평등 부서 및 OECD 성평등 네트워크 등과의 협력 논의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8,022 천원)					
	없음					
주최기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UNESCO 본부		별첨		유네스코 2008-2009 및 2008-2013 사업 방향 논의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10. 31.

출 장 복 명 자 : 김 경 애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The 34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보고자 :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 과제명 : 제34차 유네스코 총회

(The 34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2. 회의 배경 및 목적

UNESCO 한국위원회 대표단 일원으로 총회 참석

3. 참가자 : 김정애 / 원장

4. 회의일정 및 장소 : 2007년 10월 24~27일, 프랑스 파리

일시	출장 일정	비고
10. 23	한국 출국 및 프랑스 입국	
10. 24	유네스코 총회 교육관련 회의 참석	
10. 25	유네스코 총회 시민단체 회의 참관 및 각국 대표단 면담	
10. 26~27	유네스코 총회 인문사회과학관련 회의 참석 (27일 (토) 회의 오후 3시까지 연장 진행됨)	
10. 27	프랑스 출국	
10. 28	한국 입국	

5. 주요내용

제34차 유네스코 총회는 'Africa'와 'Gender'가 주요의제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유네스코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4년간 재임할 상임이사국 선출과 2008/2009년의 중점사업 분야를 결정하고 2013년까지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129개국의 지지를 받아 처음으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국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분과에서는 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교육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또한 교사를 위한 재교육, 지속가능하는 발전을 위한 교육(ESD)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우리나라 대표는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철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

하면서 2008년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철학자대회와 세계여성철학자대회를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는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을 문제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과 연구를 지지하는 집단으로 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교육과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문사회과학부문 회의에서는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 인문사회과학연구를 강조하는 각국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발전도상국들은 이러한 연구에 대한 유네스코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UNESCO에 여성들을 위한 연구센터에 설립과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는 유네스코 자원의 한계에 비추어볼 때 연구 자체를 지원하기보다 국제적인 협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앞으로 이주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동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6. 참가자 역할

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34차 총회에서는 교육분과와 인문사회과학분과를 담당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음.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발언을 함. (발언 내용 참조)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제3세계 국가의 여성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던 바 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국 대표와 지역NGO대표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

아프리카 여성교육을 위한 기구의 대표들 (2개 기관), 몽골리아, 우간다 대표와 만나, 앞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아프리카지역과 몽골과의 협력과 공동연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베트남(명함받지 못함), 태국 대표와 각각 만나 여성이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여성을 받는 국가(Receiver)로 보내는 국가(Sender)들과 공동연구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7. 평가 및 제언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3세계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3세계 상대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에 최초로 진출하는 뜻 깊은 회의로 대표단들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으로도 유네스코 총회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주요의제인 여성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원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에 최초로 진출하는 뜻 깊은 회의로 대표단들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임.

라. 회의의 모든 분과에 각 담당대표단이 참여하여 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유네스코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임.

8. 본인 발표내용

34 C/5 Priority 2: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research systems in order to provide policy-oriented research on social and ethical issues

Given the Organization-wide focus on policy advice and capacity-building in the next medium-term, the delegation of Korea considers “Strengthening national research systems” as the most fundamental task of UNESCO. It should be pursued not only by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alone but also by Natural Science Sector and Education Sector in an intersectoral framework.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strengthening of MOST programme, which has been one of the persistent requests from many Asia-Pacific Member States, and we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modality of action in this programme. According to 34 C/5 or C/6.add, it is foreseen to give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policy-oriented research on such issues as poverty eradication, migration, urban issues, youth, and gender policies.

Given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it would be advisable for UNESCO to focus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o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of Member States. Also,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or regional collaborative research should be emphasized as an effective tool for knowledge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in social and human sciences and natural science as well. We hope to see UNESCO working more as facilitator of such collaborative research in the afore-mentioned areas.

Mr. Chairperson, as in many other countries, migr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against international migrants are posing serious threats to culture of peace in our country. W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working with other Asia-Pacific countries to promote culture of peace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international migration.

Thank you.

9. 개별 면담대표 리스트

Aminata Elisabeth, OUEDRAOGO/BANCE, Co-ordinator, International Centre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in Africa,
(226) 70244200, oaminataelisabeth@yahoo.fr

Mme Simone de Comarmond, President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FAWE)

(248) 344477, sdcomarmond@yahoo.com

Dr. Codou Diaw, Executive Director,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FAWE)

(254) 20-3873131, fawe@fawe.org

Prof. B.ENKHTUVSHIN, Vice President,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976-11-267827, nomcivts@magicnet.mn

SURICHAI WUN' GAE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Chulalongkorn University

218-7294, surichai.w@chula.ac.th

Augustine Omare Okurut Secretary General Ugand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56-41-259713, admin@unesco-uganda.org

10. 역대 원장의 UNESCO 총회 참석 현황

번호	성명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출장목적
1	박인덕 장혜경	원장 연구위원	1999.11.6- 11.14	프랑스 파리	제30차 유네스코 총회
2	장하진 박영란	원장 연구위원	2001.10.16- 10.23	"	제31차 유네스코 총회
3	장하진 박영란	원장 연구위원	2003.9.27- 10.5	"	제32차 유네스코 총회
4	서명선 민무숙	원장 연구위원	2005.10.8- 10.16	"	제33차 유네스코 총회